

청주 도시한옥의 증개축양상에 관한 연구

- 구도심 성안동·중앙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lteration and Extension of Urban Traditional Houses in Cheongju City located on the Central Inland of Korea

이민경*

Lee, Min-Kyoung

김태영**

Kim, Tai-Young

Abstract

Recently, many urban traditional houses have been replaced by villas and apartments for the inconvenience of lifestyl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present distribution condition, research the extension and alteration, focused on Korean urban traditional houses in Cheongju which is the old city in an inland area, and inquire into the behavior patterns of an aged living alone livelihood and a large household. As a result, in the typical 'ㄱ' types of central inland houses, all the rear and side parts are nearly extended except facades facing court, while the detached houses for an aged living alones and tenants have enlarged rooms, kitchen and 'Daecheong' within the existing wooden framework. We could grasp the enlargement of room, 'Daecheong', corridor, and storage in the layout of the existing house. There are so many alterations such as the stand-up kitchen and a water closet. A new extension on an old house was intensely built for tenants.

Keywords : Urban Traditional House, Extension, Alteration, Conservation, Use, 'ㄱ' type floor plan

주요어 : 도시한옥, 증축, 개축, 보존, 사용, 'ㄱ'자형 평면

I. 서론

여느 지방도시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중소도시인 청주지역의 도심 역시 눈으로 보아서는 변화가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의 훌륭한 한옥, 혹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도심 한복판인 남문로 1가동의 일자형 한옥이 한동안 음식점으로 사용되다가 파훼되었고,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옛 집도 자취를 감추었다. 이 모두가 도시공간구조라든가 생활패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서서히 옛 것도 유지해가면서 변화를 하였으면 한다.

최근 들어 이곳 성안동의 남문 밖 주거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¹⁾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언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지 모른다. 어쨌든 이곳 청주 구도심인 성안동과 중앙동일대는 지방의 여느 도시와는 달리 도시공간구조나 건축물에 있어서 예전의 모습을 그나마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청주읍성의 윤곽이 도로망 형태로 남아있고, 철당간·충청병마절도사영문·압각수 및 매장된 남석교 등의 문화재를 비롯하여 수많은 주거용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현존하고 있다.

전통주거인 한옥에 내재된 전통성과 도시주거지구조로 상징화될 수 있는 근대성과의 갈등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도시한옥²⁾이 주생활상의 기능·규모·설비적 측면에서 불편함을 이유로 해마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개축하면서 현재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실태파악을 통하여 도시한옥의 지속적인 보존·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진행으로, 우선 이 일대에 현존하고 있는 목조 주택의 분포에 대한 통계조사자료³⁾를 토대로, 현장답사와 관찰조사, 그리고 사전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중부지방, 혹은 도시한옥이라 할 수 있는 서울지방형⁴⁾의 'ㄱ'자형 현존 한옥 12동을 선정하여 주호내부 공간의 사용실태에 초점을 두어 실측조사⁵⁾를 행한 뒤, 증개축양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주호의 공간적 범위는 청주시 구도심, 행정동

*정회원(주저자), 청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2010년 청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청주시, 2006.12
2) 송인호,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0, 21쪽 참조
3) 청주시 구도심 성안동·중앙동 건축물 통계자료(2006년 12월 현재), 청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2단계 BK21사업팀, 2007. 8.
4) 박길룡, 조선주택잡감(朝鮮住宅雜感), 朝鮮と建築, 1941.3, 16쪽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5) 청주 도시한옥-사용실태 및 실측조사보고서, 연구보고20, 청주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2단계 BK21사업팀/유재·근현대건축사연구실, 2007.8

으로는 성안동과 중앙동 일대이고, 시간적 범위는 주호의 신축경과연도가 50년 이상 지난 1959년 이전의 목조주택에 한정한다. 도시한옥은 특성상 도시맥락 및 공간구조, 특히 길과 향에 대응하여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개 주호단위로서의 ‘ㄱ’자형 도시한옥의 증개축양상인 내부공간의 변경, 주설비공간의 개조, 그리고 주호의 증축을 내용적 범위로 한다.

II. 청주 도시한옥 현황 및 선정경위

1. 통계조사

현재 청주시 구도심은 크게 두 개의 행정동인 성안동과 중앙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성안동에는 서문동·북1가동·남2가동·문화동·남주동·남1가동·서운동·석교동의 법정동 8개동, 중앙동에는 수동·북3가동·북2가동·영동의 법정동 4개동, 총 1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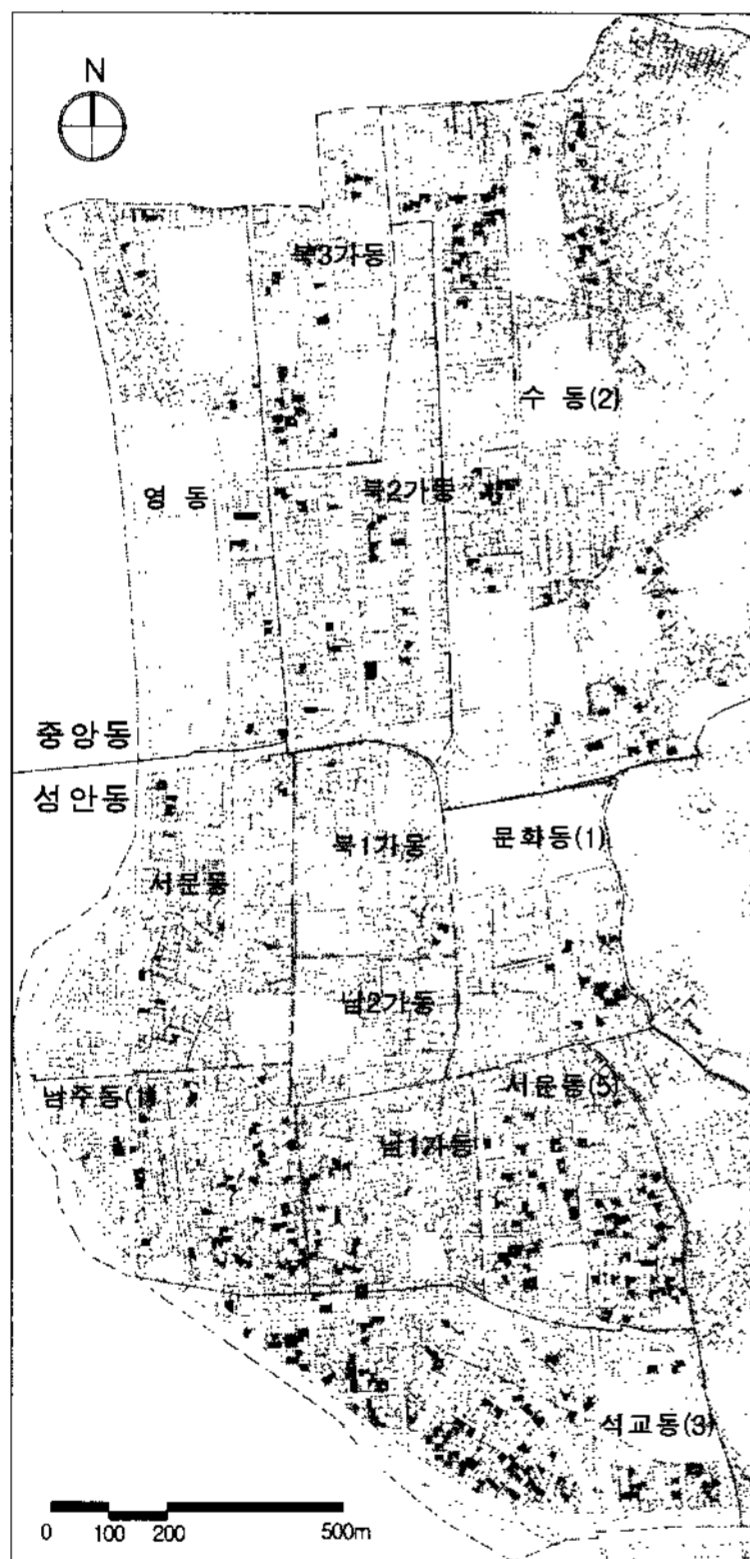


그림 1. 청주 구도심 성안동·중앙동 목조주택 분포현황도 (2006년 11월 현재, 괄호안은 조사대상주호 갯수임)

구도심의 건축물은 성안동 3,393동, 중앙동 2,414동으로 총 5,807동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단독주택은 중앙동 1,500동, 성안동 999동 총 2,499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신축경과연도 50년이 지난 1959년 이전의 단독주택은 중앙동 384동, 성안동 403동 총 787동으로, 단독주택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목조주택은 607동, 목구조에 기와지붕인 주택은 545동이며, 실제로 확인 가능한 주택이 445동이었다. 따라서 구도심 내 단독주택 중 50년 이상 된 기와지붕마감의 목조주택은 전체 건축물 5,807동의 7.6%, 단독주택 2,499동의 17.8%로 나타났다.

2. 현장 및 관찰조사

실제로 확인가능한 목조주택 445동을 대상으로, 2007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현장조사를 시행하고서, 폐가와 철거된 주택, 여인숙, 상점 및 음식점 용도, 그리고 간이식 주택 등 총 245동을 제외하고, 총 200동(성안동 137동, 중앙동 63동)을 선정하였다. 제외된 건축물 245동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된 폐가와 철거된 주택이 59동이고, 일정하게 거주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 주생활실태를 볼 수 없는 여인숙 4동, 상점 및 음식점 29동,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나 한옥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간이목조주택 137동이다.

현장조사에서 선정된 200동을 주택규모 및 형태상 ‘—’자형, ‘ㄱ’자형, ‘ㄷ’자형, 기타의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ㄱ’자형 125동, ‘—’자형 35동, ‘ㄷ’자형 21동, 기타 유형 19동이었다. 중부지방의 일반적인 유형인 ‘ㄱ’자형이 전체의 6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동의 도시한옥을 관찰조사한 결과, 비교적 양호한 한옥으로 ‘ㄱ’자형 28동, ‘—’자형 4동, ‘ㄷ’자형 4동, 기타 유형 3동으로 총 39동의 한옥을 선정하였다. 이들 중 ‘ㄱ’자형 28동의 한옥을 대상으로 일일이 주호를 방문한 결과, 거주자의 허락을 득한 12동을 조사대상주호로 최종 선정하여 실측을 행하고서, 증개축양상을 분석하였다.

3. 조사대상주호

조사대상주호 12동의 ‘ㄱ’자형⁶⁾ 도시한옥은 청주시 구도심인 성안동·중앙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립되어진지 50년 이상 경과한 목조주택이다. 대지면적은 200 m² 내외이고, 원형부분⁷⁾이라고 생각되는 칸으로 구획된 구체(構體)의 연면적은 66-85 m²이며, 칸의 기본 모듈은 8자

표 1. 청주 구도심 토지/건축물 통계자료 총괄표(2006년 12월 현재)

행정동	세대수	인구수 (명)	도시계획상 면적(m ²)	필지수(개)				건축물 동수(동)			
				대지	도로	기타	계	본건물	부속건물	비과세건물	계
성안동	3,816	8,520	1,155,899	4,081	1,094	187	5,331	3,128	209	56	3,393
중앙동	3,192	7,680	1,787,366	3,003	745	507	4,255	2,030	260	124	2,414
계	7,008	16,200	2,943,265	7,084	1,842	694	9,586	5,158	469	180	5,807

6) 안방과 부엌의 위치관계에서 볼 때, 09, 12주호는 ‘—’자형이지만, 잦은 증개축으로 인하여 외관상 ‘ㄱ’자 형태를 띠고 있어 조사대상주호로 선정하였다. 주호의 번호는 법정동 순서로 하였다.

표 2. 성안동 · 중앙동 건물분포현황 및 조사대상주호

행정동	법정동	전체 건물 동수	-1959 주택 동수	-1959 목조주택 동수	-1959 목조기외 동수	대상 주호	제외					현장조사선정				관찰 조사 선정	조사 주호 선정		
							계	폐가 철거	여인숙	상점 음식점	간이 건물	기타	계	‘ㄱ’ 자형	‘ㄱ’ 자형			‘ㄷ’ 자형	기타
성안동	서문동	519	22	16	14	15	7	-	1	2	4	-	8	2	6	-	-	1	
	북1가동	204	7	5	2	2	2	-	-	-	2	-	-	-	-	-	-	-	
	남2가동	176	-	-	-	-	-	-	-	-	-	-	-	-	-	-	-	-	
	문화동	249	22	19	19	15	8	4	-	-	4	-	7	1	4	1	1	1	1
	남주동	571	89	79	62	57	43	11	-	8	24	-	14	2	9	2	-	4	1
	남1가동	401	43	39	31	27	18	5	-	2	11	-	9	2	5	2	-	2	
	서운동	502	84	77	76	73	23	8	-	3	12	-	50	7	34	5	4	10	4
	석교동	771	136	116	115	109	60	12	-	6	42	-	49	10	31	2	6	9	3
소계	3,393	403	353	319	298	161	40	1	21	99	-	137	24	89	12	11	27		
중앙동	수동	1,474	287	172	164	89	48	10	-	4	18	16	41	7	26	5	3	9	3
	북3가동	194	25	25	22	20	12	5	-	2	5	-	8	1	3	2	2	2	
	북2가동	422	33	23	21	19	11	1	3	1	6	-	8	3	3	1	1	1	
	영동	324	29	22	19	19	13	3	-	1	9	-	6	-	4	1	1	-	
	소계	2,414	384	254	226	147	84	19	3	8	38	16	63	11	36	9	7	12	
합계	5,807	787	607	545	445	245	59	4	29	137	16	200	35	125	21	19	39	12	

(2.40 m)-9자(2.70 m)이다.

현재의 거주자들은 많게는 40년 이상에서 적게는 10년 동안 거주하여 왔으며, 여느 도시의 한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거주자의 대부분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12개의 주호 중 03, 04, 07, 11, 12주호는 독거노인이 거주하면서, 남은 공간에 세를 주고 있다. 04주호의 경우에는 독거노인이 홀로거주하며, 기존 생활모습을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02, 10주호는 노부부가 살고 있으며, 10주호는 별동에 셋집을 두고 있다. 05, 06, 08주호는 2대가 거주하며, 01, 09주호는 요즘 보기 드문 사례로, 우리의 전형적인 한옥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대가족구성인 3대가 거주하면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예이다.

III. 증개축양상

도시한옥의 증개축에 있어서, ‘개축’이라는 어휘는 기존 규모의 범위내에서 칸으로 구획된 구체부분과, 구체와 연결되어 돌출된 부분의 변경 및 개조를 일컫는다. 이와는 달리 구체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담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구체와 독립된 구조체를 별동으로 세운다든가 하는 것은 ‘중축’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도시한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행위를 변경 및 개조, 증축이라는 범주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특징적인 사항을 언급하기로 한다.

도시한옥의 내부공간은 생활방식 및 가족구성원의 변화

표 3. 조사대상주호 개요

주호	항목	소재지	세대유형	전입연도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구체연면적 (m ²) ¹⁾	건축연대	칸의 기본모듈 (m)	셋집갯수 ²⁾
01		문화동15-29	3대	1970	207.3	66.1	75.3	1935	2.43-2.70	-
02		남주동107-1	노부부	1978	211.9	66.1	59.2	1935	2.51-2.70	-
03		서운동20-13	독거노인	2001	313.7	66.1	90.1	1959	2.42-2.75	7(4)
04		서운동23-2	독거노인	1970	854.0	93.0	46.2	1958	2.36-2.70	-
05		서운동24-9	2대	1977	149.7	39.7	49.8	1959	2.41-3.06	-
06		서운동27-7	2대	1981	246.5	87.2	65.1	1952	2.42-3.66	-
07		서운동27-12	독거노인	1990	155.4	46.2	47.5	1957	2.43-2.48	2(1)
08		석교동67-6	2대	1975	62.8	94.1	77.0	1932	2.06-2.46	1
09		석교동187	3대	1985	199.9	52.9	74.1	1936	2.42-3.06	1
10		석교동429	노부부	1968	488.6	89.2	93.2	1941	2.43-3.08	4(3)
11		수동89-3	독거노인	1999	229.1	72.2	75.5	1949	2.45-3.11	6(4)
12		수동89-7	독거노인	1983	180.8	66.1	72.6	1947	2.80-3.37	1

¹⁾칸(間)으로 구획된 부분만 산정 ²⁾팔호안은 별동에 거주하는 셋집 갯수

7) 건립 당시의 원형부분 추정에 대해서는, 지붕형태를 통하여 외벽 구체선을 규정하고, 서울지방형의 ‘ㄱ’자형 평면유형에 따라 실배치구성을 전제로 하면서, <그림 5>에서와 같이 건립 당시 형태를 알 수 있는 도면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거주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행하였다.

표 4. 주호별 증개축실태

항목	변경							개조					증축	
	개실 연결	대청의 변경			뒷간의 이용			화장실		부엌의 입식화			본채	별동
		대청	홀및방	거실	확장	복도	수장고	내부	외부	K형	DK형	LDK형		
주호														
01	●		●		●	●			●		●		●	
02	●		●		●		●		●		●			●
03	●		●(방)			●		●	○		●		●	●
04	●	●			●	●		○			●			
05	●		●				●		●		●		●	
06	●		●		●			●			●		●	
07	●	●			●	●			○	●				●
08	●	●			●	●			○	●				●
09				●	●			●	●			●	●	
10	●			●	●		●		●			●	●	●
11			●		●				○		●		●	●
12	●	●	●		●		●		○	●			●	

범례 ●: 증개축이 이루어진 부분 ○: 기존 재래식화장실 사용

에 따라 수많은 변경, 개조, 그리고 증축이 이루어져 왔다. 내부공간의 변경에 있어서, 작은 규모의 개실 연결 및 확장, 대청 및 뒷간의 내부화에 따른 쓰임새 변경을 들 수 있다. 수도·전기·가스의 보급에 따라 기존 주설비 공간의 개조는 부엌의 입식화와 화장실의 내부화로 대표되며, 주호의 증축은 부족한 수장공간의 설치, 주설비 관련제실과 셋집의 증축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도시한옥의 증개축양상에 대하여 주호 내부기능의 변경과 개조, 그리고 증축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대상주호의 증개축시기는 <표 3>에서와 같이 세대주가 전입한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청주시 도시구조 및 생활방식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된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증개축양상을 띠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주호 내부공간의 변경

1) 개실의 연결 및 확장

도시한옥의 각 주호별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내부공간의 변경을 살펴보면, 개실의 연결과 더불어 골방 및 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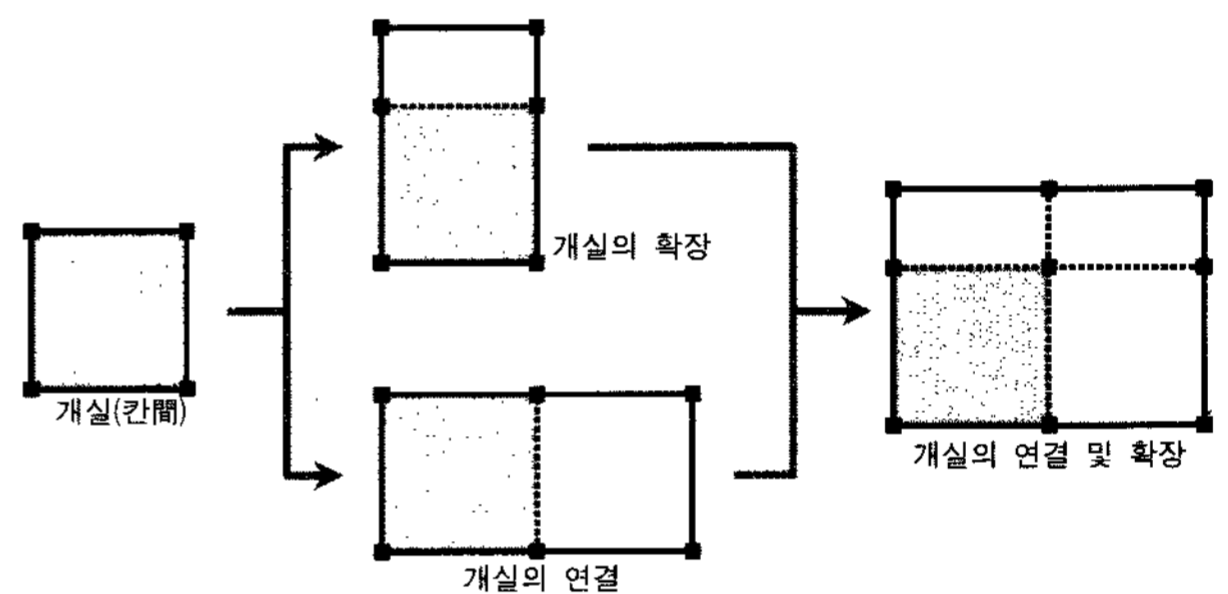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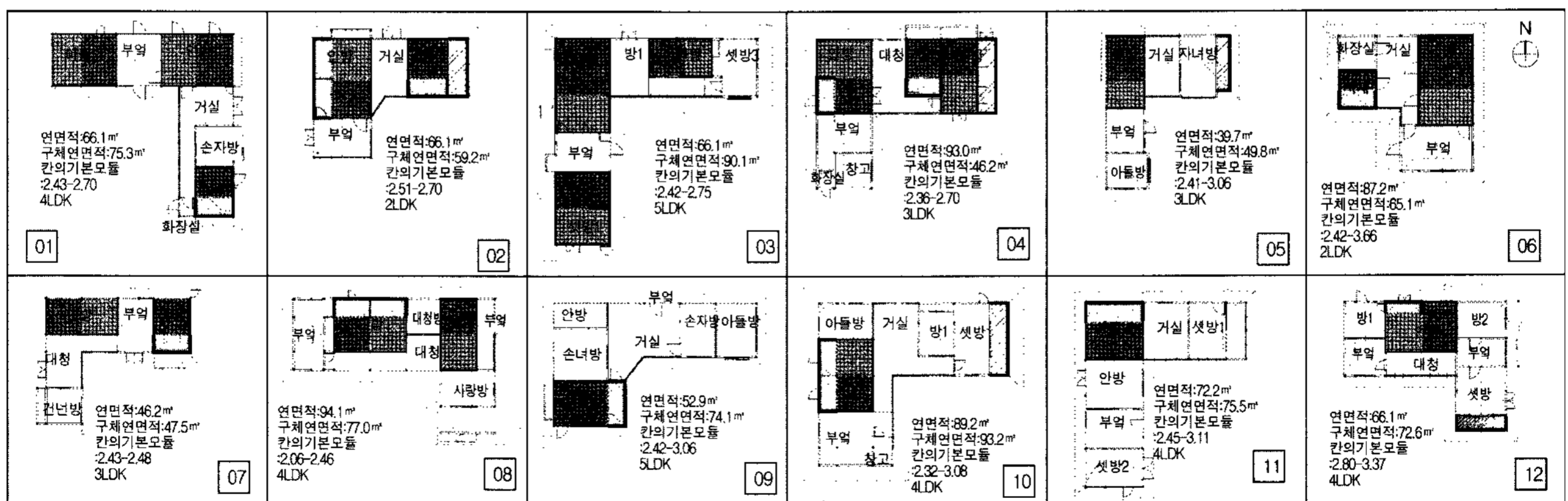


그림 2. 개실의 연결 및 확장 모식도

간으로의 확장에 따른 단위공간규모의 증대이다. 기존 개실의 한변 크기가 8-9자로 면적이 7-8m²이었으나, 안방 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가족구성원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생활용품의 증가 등으로 넓은 실의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 칸 모듈의 실규모를 한칸 반, 혹은 2칸 이상이 되도록 개실의 확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호에 따라 각각의 방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 기존의 개실, ▨ 개실의 연결, ▤ 개실의 확장, ▩ 수장공간의 이용)

그림 3. 주호 내부공간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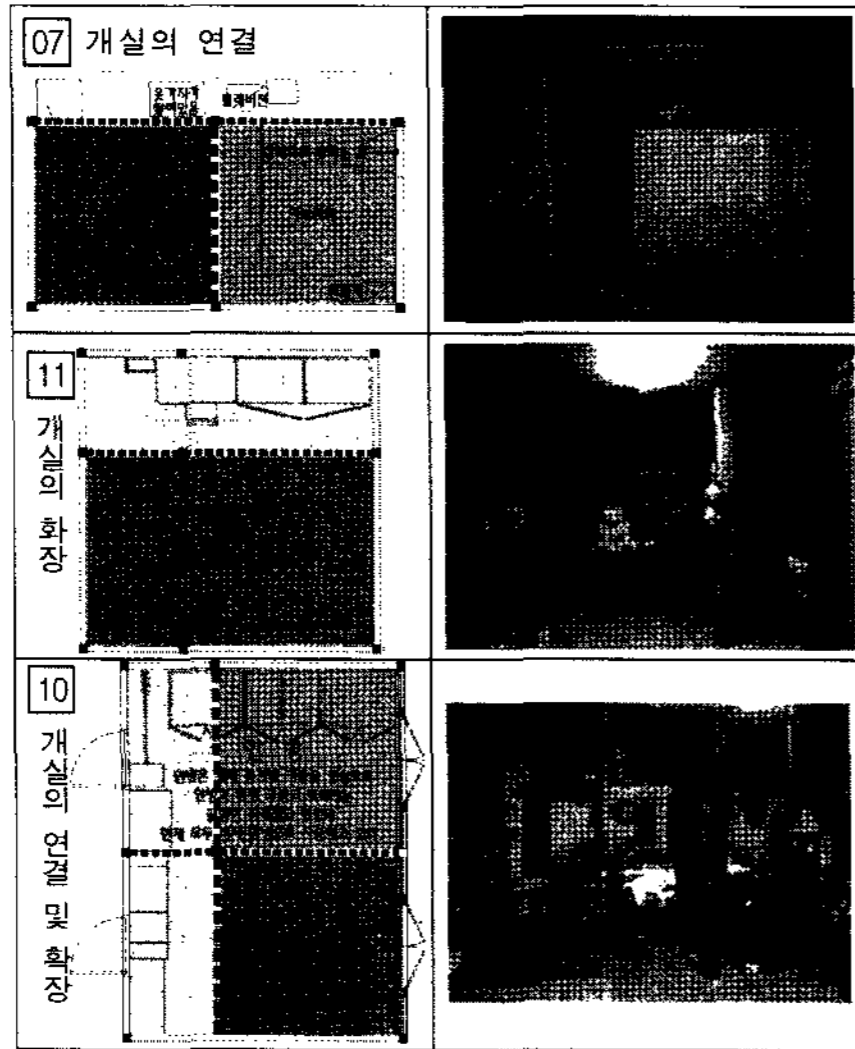


그림 4. 개실의 연결 및 확장 사례

예전에 안방으로 사용되었던 실에서 개실의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안방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구조체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은 간직하고 있다.

개실의 연결은 주호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경우는 ‘ㄱ’자형의 꺾임부분에 위치한 안방에서이다. <그림 5> 04주호 평면의 변화에서와 같이, 기존 2개의 방으로 구획된 안방이 현재는 하나의 방으로 구획되고, 후퇴간 역시 안방의 확장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건넌방은 전퇴간으로 확장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두 개의 방으로 사용되던 사랑방 역시 개실이 연결되어 있다. 예전에는 식구가 많아 방의 수요가 많았지만, 세대구성원이 축소되어 많은 방이 필요하지 않아 여러 개의 실을 연결해 하나의 큰 방으로 사용하며, 동선의 단축과 개실 이용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현재 대부분의 한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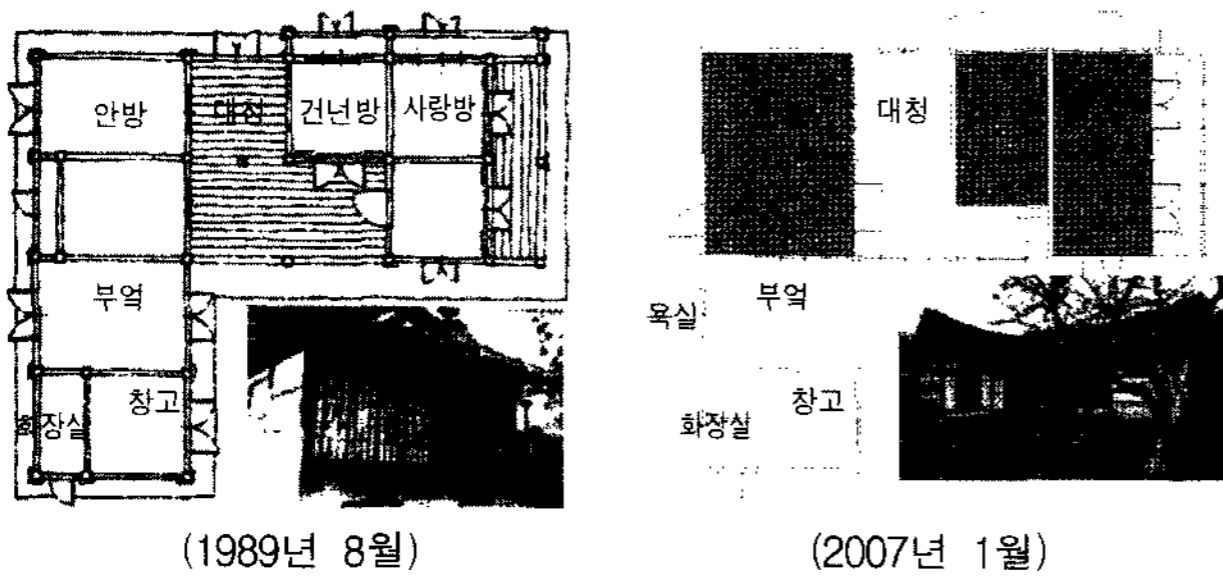


그림 5. 04주호(서운동23-3) 평면의 변화

개실의 확장은 골방 혹은 뒷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01, 02, 07, 11주호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주로 건넌방에서 나타나는데, 단변 폭이 1.2m 정도의 골방이나 뒷간까지 실의 용도로 사용된다. 01주호 손녀방의 측퇴간 확장, 02주호의 건넌방 전퇴간 확장, 그리고 07주호 셋방의 전퇴간 확장 및 전면 수납공간 증축의 예를 들 수 있다. 11주호는 아들방을 골방으로 확장한 사례이다.

개실의 연결과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넓은 실면적을 확보한 사례로는 04, 08, 09, 10, 11주호가 있다. 이들은 아랫방+웃방+골방으로 이루어졌던 실을 연결한 경우로, 예전에는 미닫이문에 의해 아랫방과 웃방으로 나누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개실의 연결과 확장은 주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안방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위실의 모듈이 8-9자의 규모에서 12-18자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2) 대청 및 뒷간의 쓰임새 변경

전래주택에 있어서 대청마루와 작은 마루 공간인 뒷간은 실로서의 기능이외에 각각의 실과 외부 마당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 혹은 분배 기능도 한다. 이들 대청과 뒷간이 내부공간화되면서 대청은 거실과 방으로, 뒷간은 개실의 확장공간과 복도, 그리고 수장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모두는 부족한 거주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대청마루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로 04, 07, 08, 12주호가 있는데, 08주호의 대청마루는 대청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기에 직접 면하면서, 옛 대청마루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예이다. 04, 07, 12주호는 외풍을 막기 위하여 창을 내달아내었으나, 대청은 예전 그대로 바닥에 마루널이 깔려 있으며, 04, 07주호의 경우에는 천정도 연등천정으로 노출되어 있어 지붕구조도 보여진다. 여름에는 시원하여 사용을 활발하게 하지만, 대부분 각 실의 연결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한옥의 옛 대청은 바닥마감을 교체하고, 마당에 면한 곳에 창을 내달아 내부화시켜, 각 실을 연결해주는 홀로 사용되고 있다. 03주호의 경우 실의 수요가 많아, 대청마루까지 내부공간화 되면서 실질적 한옥의 대청마루 개념이 없어지고, 현재는 셋집의 자녀공부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도 있다.

주택의 거실용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로, 09, 10주호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다른 주호보다 거실 규모가 1칸 정도 큰 것을 볼 수 있다. 09주호의 경우, 거실·식당 및 부엌(LDK)이 함께 있는 유형으로, 거실에 텔레비전이 놓여져 있어,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시청을 하거나, 부엌이 연결되어 상을 놓고 식사를 하는 가족 단란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10주호는 09주호와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모여 단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이지만, 현재 아버지와 아들 단 둘이 거주하고 있어, 거실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뒷간 역시 대청과 마찬가지로 내부화되면서, 전퇴간은 복도, 후퇴간은 개실의 확장공간, 측퇴간은 수장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뒷간은 개실의 확장공간이외에 원래의 기능인 복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외에 04주호 배면, 11주호 안방 전면, 08주호의 사랑방 전면에서 뒷간의 연결복도 역할을 하는 뒷마루가 있는데, 현재까지도 잘 사용되고 있다. 02, 04, 05, 10, 11, 1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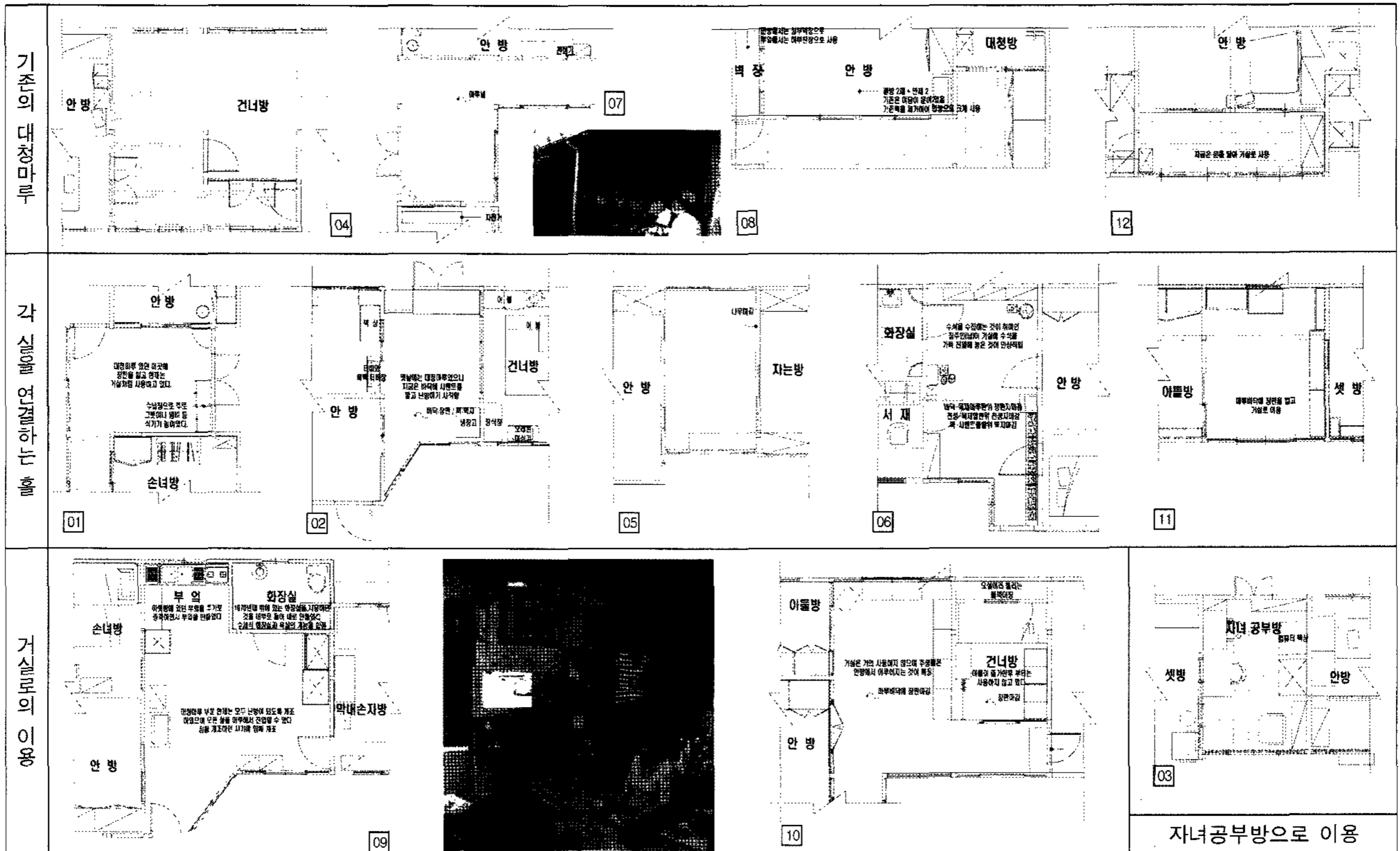


그림 6. 대청의 쓰임새 변경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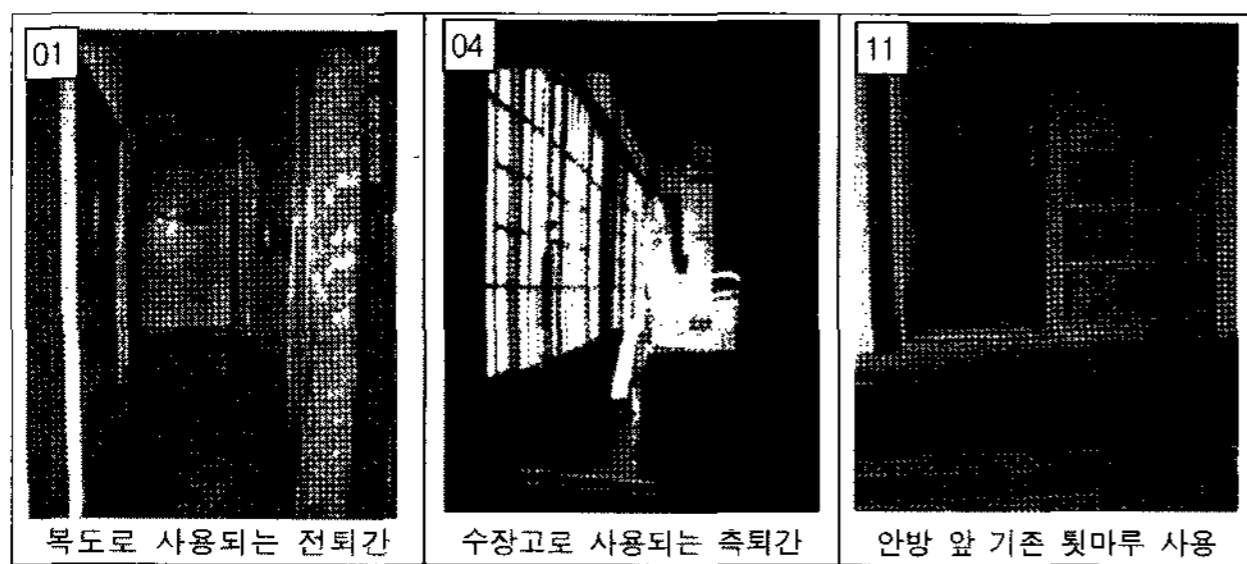


그림 7. 툇간의 이용 사례(01,04,11주호)

호는 축퇴간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벽이나 창으로 막아 내부화시키고, 집안의 각종 잡동사니를 놓아두는 수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주설비공간의 개조

1) 부엌의 입식화

우물에서 수도로의 변화, 그리고 내부공간에서의 물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엌의 조리행정에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내부공간에 수도 및 위생설비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도시한옥에서는 한동안 구조체계와 공간구성 속에 이들을 위치시킬 수 없어 별동으로 떨어져 있거나, 기존 주택 외부에 부착시키는 형식으로만 나타났을 뿐이었다.

‘ㄱ’자형 도시한옥에서는 온돌난방방식에 따라 안방에 바로 인접하여 부엌이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이 오늘날 거실과 복도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엌의 기능이 안방과 매우 밀접한 관

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부엌과 안방의 연결부분에 골방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전에는 부엌의 찬방이나 아랫방 수장고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지만, 부엌의 개조와 함께 안방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기능이 더욱 밀접해졌다.

‘ㄱ’자형 도시한옥은 난방 및 취사관계상 부엌과 안방에 인접하면서, ‘부엌-방-마루-방’의 구성방식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주호 모두 꺾임부분의 안방에 인접하여 부엌을 두고 있으나, 09주호만 부엌의 위치가 변경되어 있다. 01, 02, 05, 06, 09, 10, 11, 12주호는 외부로의 기존 출입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부엌에서의 기능이 취사만이 아니라 식사도 하고, 인접해서는 세탁이라든가 수장의 기능 등 다용도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외부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내·외부의 출입이 가능하고, 기존의 외부출입만 가능했던 때와는 다르게 장판마감으로 실내화되어 안방과 연결이 자유롭다.

조사대상주호의 부엌 모두 입식화되었고, 조리대·개수대 및 가열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입식화 부엌은 부엌(K)형, 식당+부엌(DK)형, 거실+식당+부엌(LDK)형의 3유형으로 분류된다. 부엌(K)형은 07, 08, 12주호로, 칸의 작은 단변폭으로 말미암아 부엌의 작업행정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당+부엌(DK)형인 01, 02, 03, 04, 05, 06, 11주호 역시 작은 공간이지만,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석의 식사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사는 안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실+식당+부엌(LDK)형은 기존의 부엌을 전퇴간으로 확장한 09주호, 기존의 넓은 대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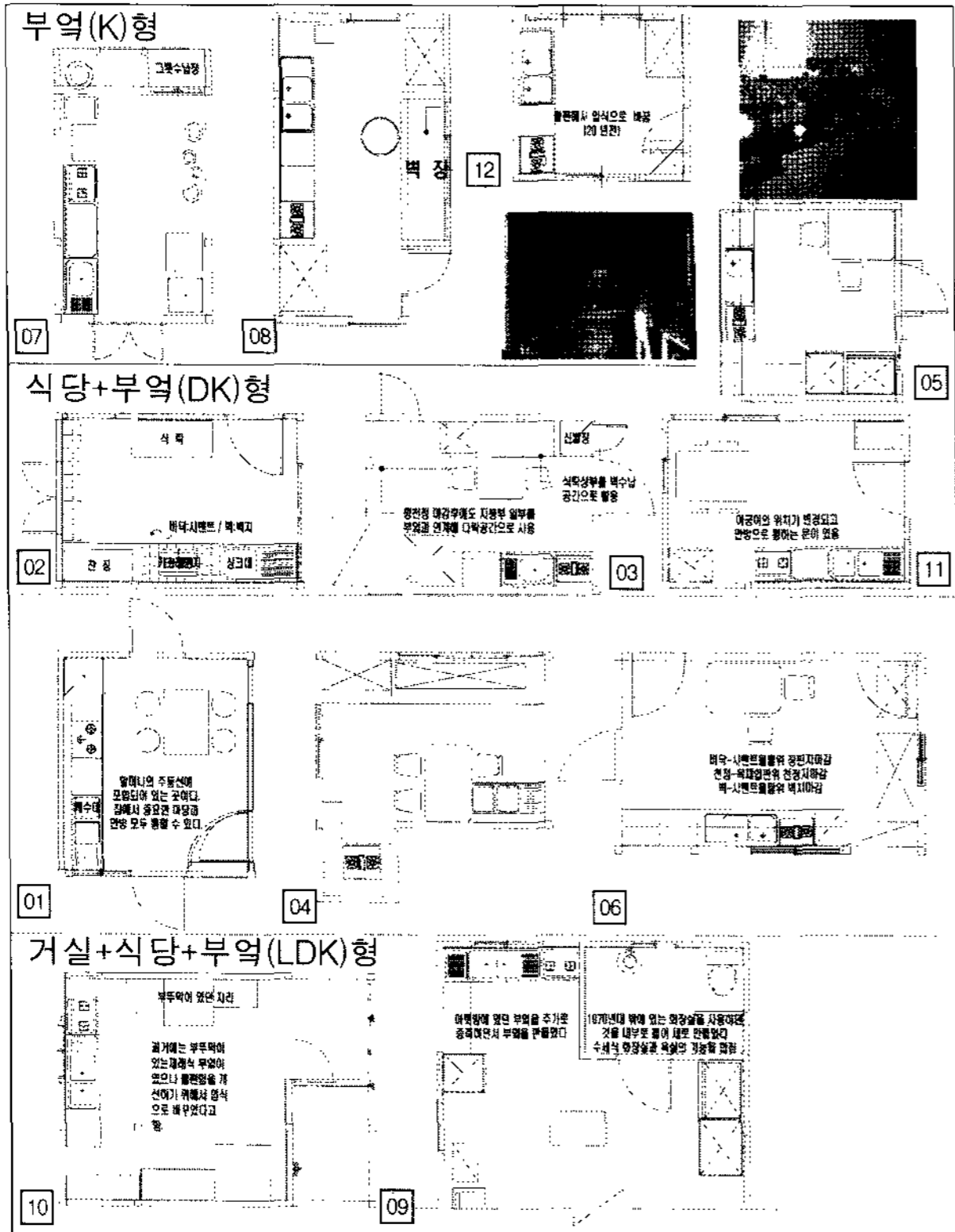


그림 8. 부엌의 입식화 유형

활용한 10주호에서와 같이 비교적 넓은 부엌공간을 확보한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부엌의 경우는 입식화 경향이 뚜렷하지만,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변경된 부분이 없고, 식사행위도 여전히 안방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생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옥에서 생활하면서 익숙해진 생활습관으로 인해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는 상관없이 실 사용자들이 한옥에서 생활함으로 지속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화장실의 내부화

세면소, 소변소, 대변소로 구성된 화장실은 외래주택에서만 보였을 뿐 1960년대 공영 및 민영주택에서도 화장실의 내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⁸⁾ 실제적으로는 도시공간의 하부구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시한옥의 화장실은 대문간채에 부속되어 본채에서 떨어진 곳에 재래식 화장실이 위치하였었고, 그 후 01, 03, 04주호에서와 같이 뒷간을 이용하여 본채에 부착되었으며, 위생설비의 문제로 수세식으로 개조되면서 최근에는 도시한옥의 구체 내부에 화장실 겸 욕실을 두는 주호가 나타나고 있다.⁹⁾

03, 07, 08, 11, 12주호는 외부에 별동으로 지어진 기존의 재래식화장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뒷간을 이용한 화장실 중 04주호, 일반적인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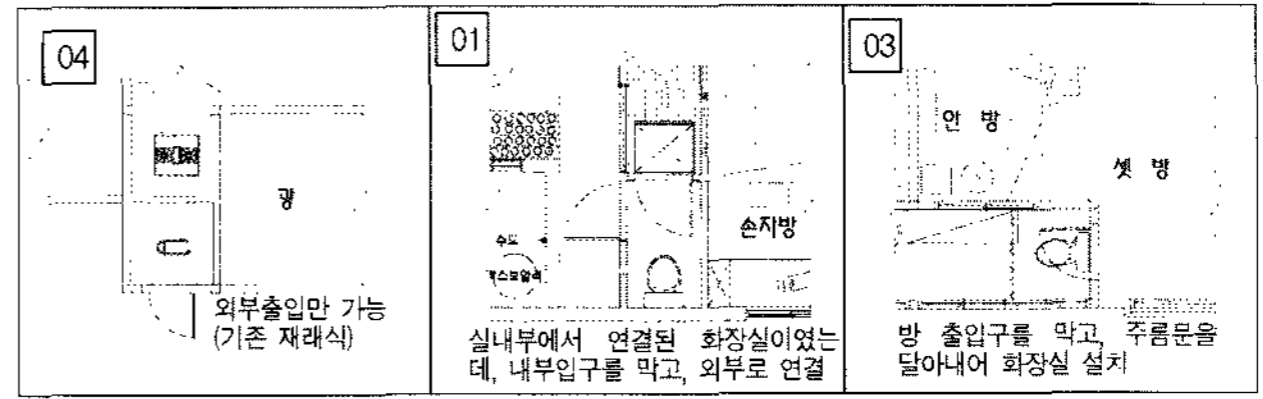


그림 9. 뒷간을 이용한 화장실 사례

동 형태와는 다르게 측퇴간에 부착되어 외부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개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01주호의 경우, 복도 맨 끝에 내부화장실을 설치하였다가, 다시 외부로 통해 들어가도록 변경하였다. 03주호의 경우도 전퇴간 복도 끝에 문을 막아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화장실은 대부분 재래식 화장실이 있던 자리에 개조하거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01, 02, 07, 08주호가 그러한 경우이다. 내부에 화장실을 두고 있는 주호로는 03, 05, 06, 09주호이다. 별동을 증축하는 경우에 창고 옆에 간단한 세면과 세탁을 할 수 있는 수돗가와 화장실을 같이 증축하는 경향이 보인다.

3. 주호의 증축

1) 수장공간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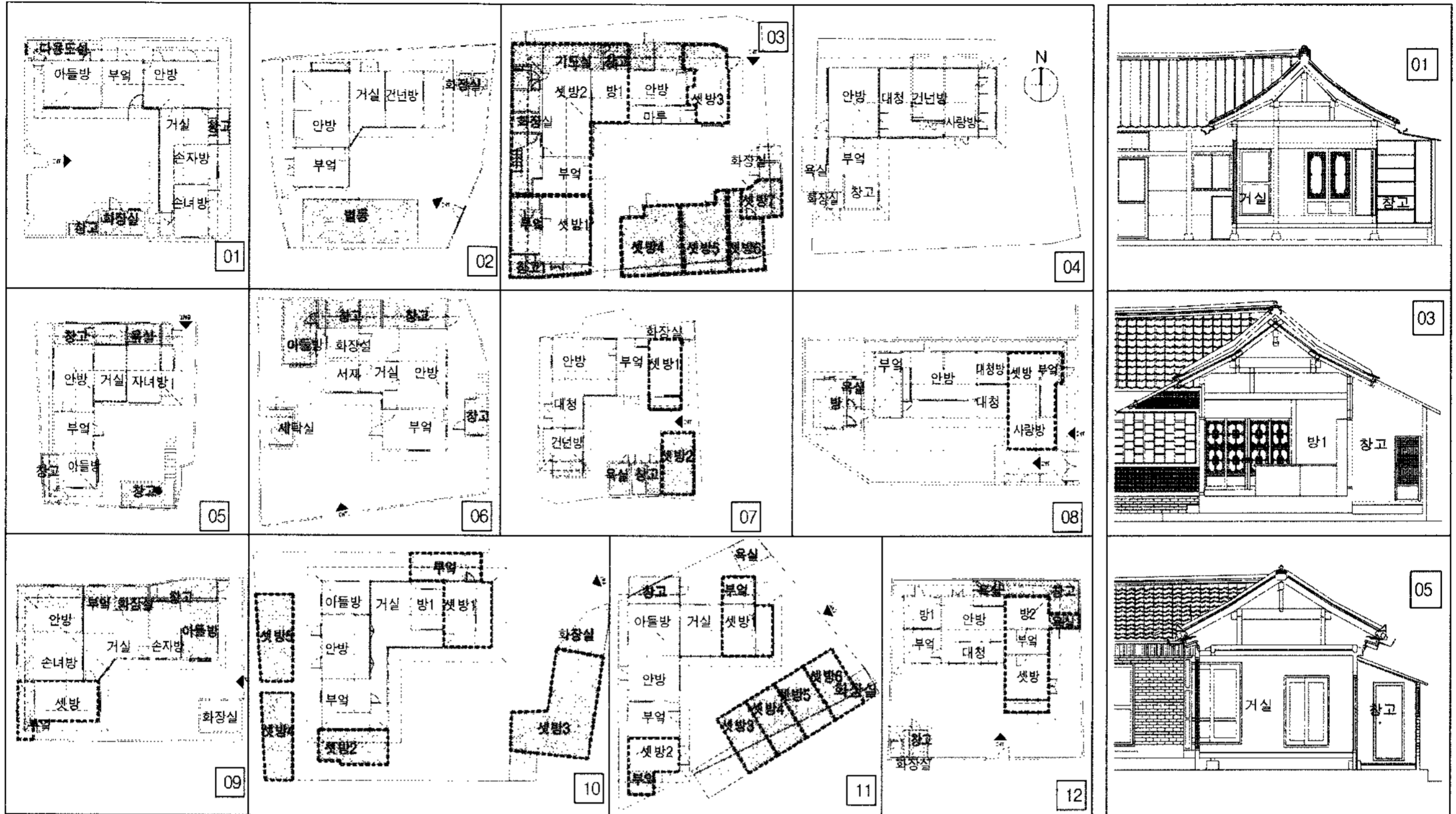
방, 대청, 부엌 등의 확장은 생활방식 및 그에 따른 생활용품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수장공간의 부족에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도시한옥은 전·후·측퇴간을 수장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개실의 확장으로 이들 공간마저 사라지면서 새로운 수장공간이 요구되었다.

3대가 살고 있는 01주호의 경우, 많은 세대구성원으로 본채내에 수납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어, 기존 대청의 후면에 지붕을 덧달아내어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2대가 살고 있는 05주호는 기존의 구조체틀 안에서 전후퇴간과 측퇴간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그래도 부족한 수장공간에 대해서는 돌출구조의 형태가 가능한 0.3-0.6m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방, 대청, 부엌의 모든 공간에서 나타나며, 도시한옥의 원기능과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설치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07주호의 경우, 예전의 할아버지방과 건넌방의 전면 쪽으로 반칸 규모의 돌출부를 두어 수장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처마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주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수장공간을 확보하려해도 마당에 면한 쪽으로는 가능한 확장을 하지않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측면과 배면 쪽으로 확장하여 수장공간을 두려하는 것이다.

8) 이훈 · 김태영, 한국근대도시주택의 건축요소별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5.4, 15쪽

9) 요즘 들어서 서울 가회동 한옥보존지구의 한옥 개조에서는 내부 화장실 및 욕실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청주지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 셋집, ▨ 증축부분)

그림 10. 주호의 증축

그림 11. 기존의 본채 외관을 유지하면서 수장공간을 설치한 주호 단면 사례

이와는 달리 여러 가구를 수용하고 있는 03, 06, 11주호에서는 각 주호마다 커다란 별도의 수장공간을 두느라 도심한옥의 원래 기능 및 형태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놓았다.

2) 주설비 관련제실의 증축

기존 주호에 있어서 본채의 증축은 대부분 주설비와 관련된 보일러실, 화장실, 욕실, 창고, 다용도실 등이다. 난방방식이 바뀌면서 보일러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를 본채에서 원거리에 설치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주 사용공간인 본채 후면이나 측면을 이용하여 증축하고 있다. 우물에서 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세면이나 입욕을 위한 공간의 증축 행위도 일어났다. 또한, 아궁이를 떼어 음식을 익히거나 곳간(광)을 이용하여 부식물을 냉장·보관하던 방식에서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식탁 등을 사용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부엌에는 이들을 수장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존 구체안에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증축을 통해 부대시설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실례로써, 3대가 거주하는 01주호는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부부내외의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간단한 취사와 세탁을 할 수 있는 다용도실을 증축하였다. 11주호는 할머니와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들 방 후면에 보일러실을 증축하였으며, 별동을 증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12주호는 본채

후면에 부분적으로 세탁공간을 위한 다용도실과 욕실, 보일러실의 증축이 이루어졌다. 부부와 20대 아들로 2대가 사는 06주호는 본채 좌측으로 방 한 칸을 증축하였는데, 이는 아들 방으로 창고를 끼고 본채와 아주 근접해 있지만 외부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동선이 분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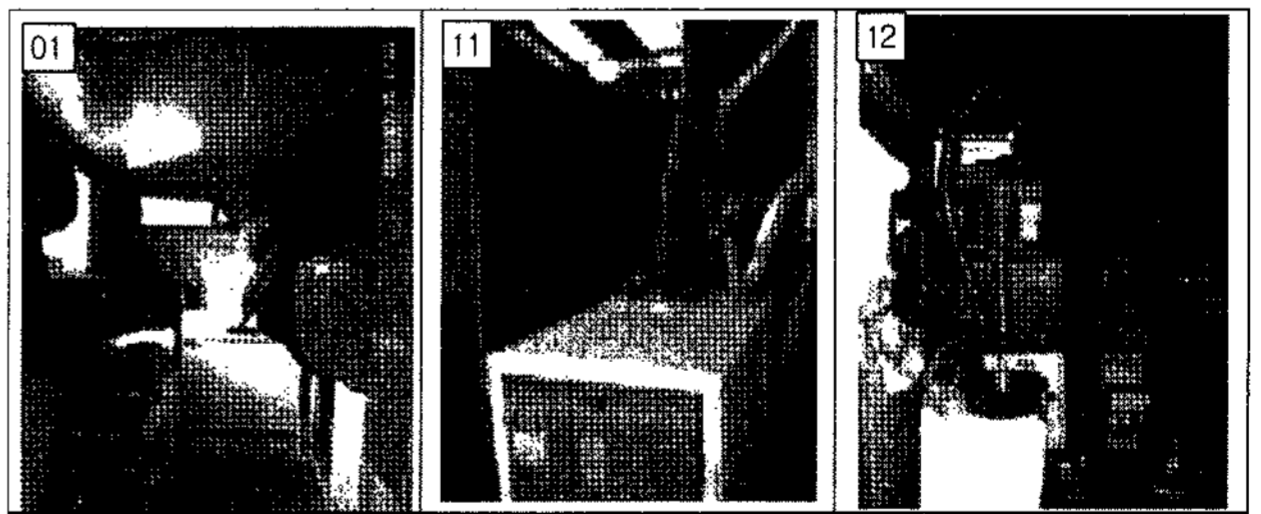


그림 12. 주설비 관련 제실의 증축

3) 셋집수용에 따른 증개축

단위세대 위주의 거주방식에서 셋집을 수용하는 변화를 보이는 것은 세대주의 고령화와 연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세대구성원들의 감소로 인하여 공실부분에 세를 주면서 생활을 위한 소득을 취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수용하는 셋집의 수에 따라, 혹은 셋집의 가족구성에 따라 주호별로 다양한 증축 양상을 보이게 하였다. 셋집의 수용과 그에 따른 증개축 양상은 당시의 생활사에서 거주자가 사회적 혹은 개인적인 상황의 변동에 대응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셋집의 수용에 따라 증축이 일어난 경우는 03, 07, 08, 09, 10, 11, 12번 주호로 총 7주호이다. 이 중에서 03주호 7가구, 11주호 6가구, 10주호 4가구 순으로 많은 셋집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 주호 이외에 07주호가 별동의 셋집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본채 내에서 수용하고 있는 셋집은 11주호 2가구, 03주호 3가구를 제외하고는 1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다. 대부분 문간방, 문간채에 세를 주어 동선의 독립성을 주고 있으며, 각각 생활을 할 수 있는 1실의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방과 부엌을 셋집의 영역으로 주기 위하여 실의 측면 혹은 배면으로 증축하여 부엌,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다.

본채에 3가구, 별동에 4가구로 총 7가구가 세 들어 거주하고 있는 03주호는 세대주가 본래의 대청과 안방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여타 주호들과 달리 세입자가 주공간을 차지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특이한 사례이다. 그 때문인지 본채의 후면과 측면 전반에 걸쳐서 원형을 벗어난 대단위의 증축이 이루어졌고, 별동의 규모 역시 다른 주호에 비하여 크다. 부엌 아래편에 위치한 셋집에서는 보일러실, 부엌 그리고 욕실의 증축이 일어났다. 옛 대청 위치와 안방, 부엌 위치를 점유하며 살고 있는 셋집의 경우에도 보일러실과 욕실을 증축했고, 창고와 화장실, 그리고 방을 위한 공간을 증축하였다. 이 가운데 방은 주 생활공간으로써의 기능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천주교도인 세입자 가족이 가끔 사용하는 기도실로 변경되었다. 주인 할머니의 안방 우측에 위치하는 셋집에는 아저씨 혼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공간의 확충을 위해 후면으로 증축이 일어났다. 별동에 설치한 화장실은 모든 세입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 각각의 셋집에 간이 부엌이 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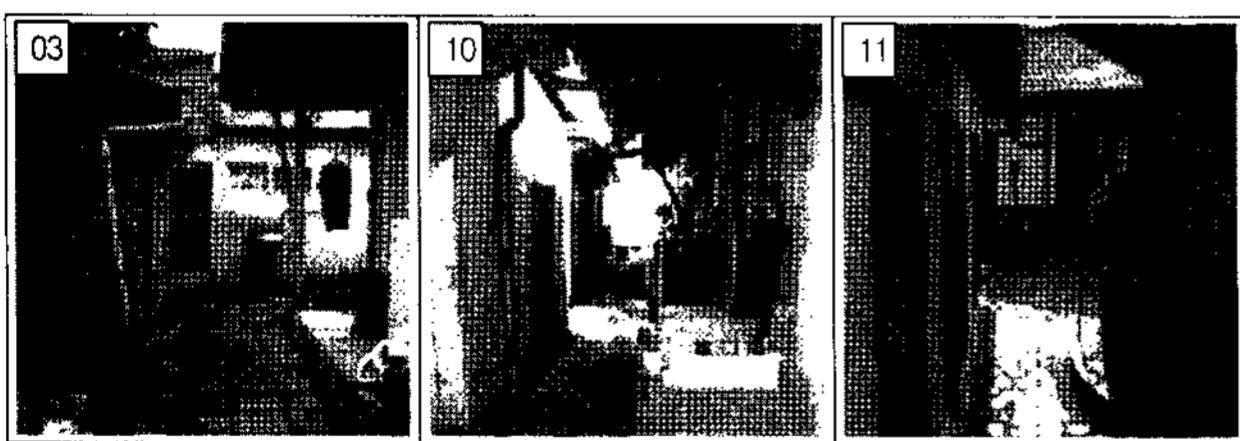


그림 13. 셋집수용에 따른 증개축

IV. 결 론

중부내륙지방의 중소도시 청주지역의 구도심인 성안동·중앙동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2007년 6월 현재 현존하는 신축경과년도 50여년이 지난 기와지붕마감의 목조주택에 대한 통계·현장 및 관찰조사를 행한 뒤,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ㄱ’자형 도시한옥 중 12동의 주호를 대상으로, 증개축양상을 살펴본 결과, 주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내부공간의 변경, 주설비공간의 개조, 그리고 수장·주설비관계 제설 및 주호의 증축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주호의 내부공간은 개실의 연결, 확장, 그리고 쓰임새 변경 등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개실의 연결은 주호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며, 개실의 확장은 골방 혹은 뒷간으로 이루어진다. ‘ㄱ’자형의 꺾임 부분에 위치한 안방에서는 개실의 연결과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8·9자 개실 모듈이 12자 크기로 커졌다. 대청의 쓰임새는 기존의 대청마루, 가족의 단란 공간인 거실로 변경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각 실을 연결하는 홀 기능을 하고 있다. 뒷간은 개실의 확장공간과 수장고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원래의 기능인 복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주호의 개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부엌의 입식화이다. 수도·전기·가스의 보급과 함께 이루어진 입식 부엌은 기능상으로는 기존의 위치와 외부로의 동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형적으로는 K·DK·LDK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식사행위는 여전히 안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화장실은 별동으로 독립된 채 기존의 재래식, 혹은 개조된 수세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뒷간을 이용하여 내부화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주호의 증축은 본채의 기능 및 외관을 유지하면서 기존 구체안에서 최소한의 수장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본채 혹은 셋집에 보일러실·다용도실·욕실·창고 등 주설비관련 제설을 덧붙이는 경우, 그리고 셋집을 별동으로 두는 경우로 대별되는데, 많은 셋집을 수용하는 몇 주호를 제외하고는 기존 도시한옥의 지붕구조 및 전면 외관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참 고 문 헌

1. 최유진·이민경·김태영(2007), 도시한옥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주생활행위 및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 청주 구도심 성안동·중앙동 건축물 통계자료(2006년 12월 현재) (2007), 청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2단계 BK21사업팀.
3. 청주 도시한옥-사용실태 및 실측조사보고서(2007), 연구보고20, 청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2단계 BK21사업팀/유재·근현대건축사연구실.
4. 최규길(2005), 경남지역 근대한옥의 안채 평면 특성에 관한 연구, 밀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논.
5. 김명선·이정우(2003), ‘중부지방가구법’에 대한 박길룡의 평가와 개량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6. 이훈·김태영(1995), 한국근대도시주택의 건축요소별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 유영희·윤정숙(1995), 1930년대 이후 서울의 도시한옥 주공간과 주생활의 변화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3).
8. 김효성·엄인섭·김종인(1990), 증개축에 의한 주공간의 변용,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0(1).
9. 이영호(1988), 개화기 이후 한국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5).
10. 박길룡(1941), 朝鮮住宅雜感, 朝鮮と建築.

(接受: 2008. 2. 22)